

전문가 칼럼

2015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



정 무 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던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윤리경영과 함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업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투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의 다수가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소외계층은 극도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소외계층이 많은데, 경제위기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의 파괴, 계층간의 갈등 고조 등 경제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더불어 사는 상생의 나눔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적극적인 예방책이다. 나눔의 문화 없이는 사회통합이 있을 수 없고, 갈등구조가 심각한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공공복지가 아무리 발달한 국가라 할지라도 민간의 나눔문화 없이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민간의 나눔문화를 선도하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금액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도 70% 이상을 기업들이 기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각종 위기 상황에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데는 기업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이윤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는 계층과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4년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지출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에 사회공헌예산을 축소했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예산을 증액하였다. 이제 피로감이 쌓여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다. 2015년 새해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새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필두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나눔문화가 활성화되어 분파된 사회의 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인 나눔문화의 확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모두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올해 반 기업 정서의 가장 큰 원인, 오톤의 탈법·편법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9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4년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의 51%가 반 기업 정서의 구체적 원인으로 탈법과 편법 등 기업 자체의 문제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31%),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9%), 경제력 집중(8%), 한국의 평등사상(1%) 등의 원인이 지목됐다. 또한, 응답자의 59.3%는 우리 사회 전반에 반 기업 정서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하였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41221144655423>

기업 사회공헌, 3개 중 1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최근 미래세대 육성과 맞춤형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14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36.2%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육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141308739>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7.78점, 전년 대비 소폭 하락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의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도인 7.86에 대비하여 0.08점 하락했다. 내·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증가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acrc.go.kr>

:: 해외 윤리경영 동향

SFO, 첫 번째 기업 뇌물 수수 유죄 판결

영국 중대 부정 단속국(SFO)은 외국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본사를 둔 인쇄 기업이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부당한 자금을 지불한 사건이다. 부정 자금은 기업 계약을 담당하는 케냐와 모리타니아의 공무원들에게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SFO는 해당 기업의 전 회장과 전 영업 마케팅 담당 이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SFO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기업에 대한 SFO의 첫 번째 유죄 판결이다.

출처: <http://blogs.wsj.com/riskandcompliance/2014/12/22/sfo-notches-first-corporate-foreign-bribery-conviction/>

글로벌 식품업계, 포장 재활용 첨단공장 공동건립을 통한 친환경경영

세계 유수의 식품업체들이 재활용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조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친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식품제품의 포장재인 음료 파우치, PET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알루미늄 라미네이트 폐기물은 대개 폐기물 매립지로 향하는데, 영국에서만 매년 1만6,000톤의 알루미늄이 버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용공장은 다 쓴 치약 튜브 등을 3분 내에 알루미늄과 청정연료로 바꾸는 공장으로 완공되면 매년 2,00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게 되며, 연구진은 공장이 3년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53

반부패 운동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부정부패

부패 척결을 목표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처벌 받은 이들의 규모가 적지 않다. 실제로 고위 관리 여럿이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중국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넓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표면화되었다. 중국의 부패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수로,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중국은 176개 국가 중 이전의 80위에서 100위로 하락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출처: <http://kr.wsj.com/posts/2014/12/17/>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대한 평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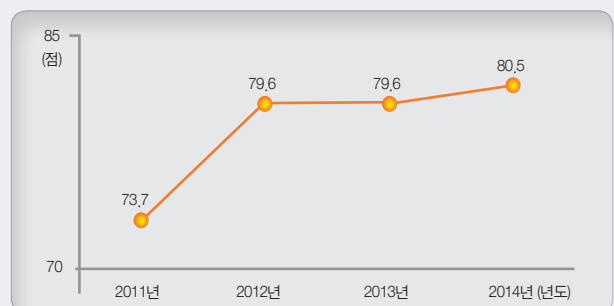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매년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자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콘텐츠를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독자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768명의 독자가 응답하였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결과 2014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는 80.5점으로 2013년의 79.6점보다 0.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연도별 만족도



콘텐츠 만족의 이유로는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가 41.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서'가 25.8%, '업무 활용도가 높아서'가 16.1%를 차지했다.

3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스터디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BSR과 Globescan이 함께 발표한 조사 보고서 'State of Sustainable Business Survey 2014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서베이 2014)'를 통해 전세계의 지속가능 경영, CSR, 윤리경영 담당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보고서 및 조사기관 소개

본 조사(2014.7.30~9.11)는 매년 BSR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2014년 조사는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에서 투명성'이라는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 실시되었다. 전세계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가 709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보고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무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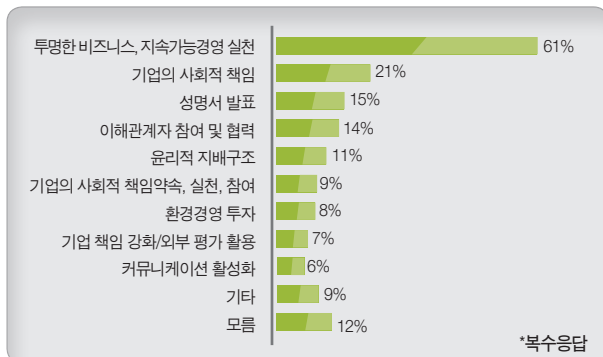
주요 시사점

1. 가장 중요한 리더십 도전 과제 '지속가능성 통합'

응답자의 63%가 '지속가능성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높은 투명성'은 29%가 응답하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3년 조사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다.

2. 대중 신뢰의 핵심은 '투명성'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법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명성(61%)'을 들었다. 한편, 대중의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만이 현재 신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5%는 보통, 나머지 29%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중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CSO의 영향력

기업 내부에 지속가능성 임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이 있을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CSO가 있으며, 6%는 곧 CSO를 임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CSO가 있다고 응답한 46%를 대상으로 CSO의 영향력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40%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의 중요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는 인권, 노동권,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지목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를 들었고, 이어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탄소 감소 규제', '공급망',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적 인식 증가' 등이 언급되었다.

5. 메가 트렌드

앞으로 2년 동안 비즈니스를 함께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기술의 변화(69%)', '경제적 변화(68%)', '투명성(65%)' 이라고 답하였으며,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정치적 불안정성(72%)',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 불균형(60%)' 등으로 응답하였다.

결 여

조사 결과 '기업의 투명성'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목되었고,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 리더십 도전과제'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콘텐츠 만족 이유

이유	비율(%)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41.9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서	25.8
업무(윤리경영 정책 및 계획 수립 등) 활용도가 높아서	16.1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	8.2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서	7.2
기타	0.8

콘텐츠별 만족도에서는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가 8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국내외 동향'이 80.8점, 즐거운 윤리가 80.5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70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달의 책(73.4점)', '행사 스케치 및 소개(70.6점)' 콘텐츠가 75점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독자 특성별 만족도

그룹별 구독자 만족도의 경우, 공기업(공직유관단체)의 만족도

81.2점, 민간기업의 만족도 77.9점으로 나타났으며, NGO 등에 소속된 구독자의 만족도가 71.9점으로 가장 낮으며 학생과 기타 그룹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독 이유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해 구독하는 독자의 만족도가 8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 관련 업무' 담당의 이유로 구독하는 독자는 80.2점, '일반 지식 습득'을 이유로 구독하는 독자는 78.7점의 점수를 기록했다.

시사점 및 개선방향

2014년 만족도 조사 결과, 독자들은 기업윤리 브리프스 구독을 통해 윤리경영의 최신 동향 파악, 다양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거나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만족스러운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발행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이 구독자에게 최신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은 ① 글로벌 시대 윤리경영의 정의, ② 윤리경영에 방해되는 요소와 도움이 되는 요소, ③ 2015년 새해의 윤리경영 중점 추진 과제 등 3가지였고, 화학산업, 관광산업, 전자산업, 금융산업, 전력산업 등 다양한 업종별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관광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제대로 하면 경쟁력
이 될 수 있다

A 금융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이명의 윤리경영담당자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관광산업 윤리경영담당자

금융산업 유흥경영담당자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익명의 윤리경영담당자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 금융산업 윤리경영담당자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해외 계연식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반부패 주간 행사



주요 반부패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행사에서는 2014년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찰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성과 홍보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반부패 학술행사로써는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사진)를 개최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반부패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 지역별 캠페인, '고3학생 청렴 교실', 반부패 UCC 동영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지방자치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옴부즈맨이란 무엇인가요?

A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 보충적 국민권리구제제도입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청렴한 조직 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옴부즈맨이 조직 내 종업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종업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직의 관리자를 조사하거나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기업의 동반성장의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고 하던데요?

A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동반성장지수라고 합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 및 공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 공정한 거래관계, 동반성장 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는 연 1회,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연 2회 실시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를 통합하여 산정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1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5

기업, 정부, 국제단체 및 학계의 다양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대응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주최 : World Economic Forum
- 일시 : 2015. 1. 21(수)~24일(토)
- 장소 : Davos-Klosters, Switzerland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Management Institute

환경, 건강, 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성공적인 지속가능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IPMI(Inter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e)
- 일시 : 2015. 1. 25(일)~27일(화)
- 장소 : Omni San Antonio, San Antonio, TX

Volunteerism: Engaging Employees

기업 비전과 연결된 임직원들의 기술을 이용한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의의,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BC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 1. 14(수)~16(금)
- 장소 : Atlanta, GA

윤리경영 퀴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무엇이라 할까요?

- 1) 부패인식지수
- 2) 동반성장지수
- 3) 국제투명성지수
- 4) 청렴지수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4번, 프로보노**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정해진, 허강화, 장성욱, 이유리, 박우인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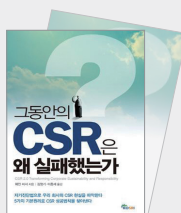
Yes 준비! Ok 윤리!

검은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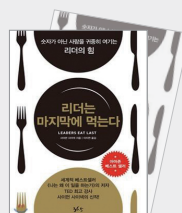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민)

새로운책 소개



그동안의 CSR은 왜 실패했는가
-자가진단법으로 우리 회사의 CSR 현실을 파악한다

저 자: 웨인 비서
출 판: 코스리
출판일: 2014. 11. 27
정 가: 12,000원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리더의 힘

저 자: 사이먼 사이넵
출 판: 36.5
출판일: 2014. 5. 23
정 가: 17,000원